



아시아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감독당국의 대응

김진억 수석담당역

■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보험시장은 경제발전과 지역적 특수성 및 글로벌화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 아시아는 경제발전으로 인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인터넷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보험에 인터넷, 모바일 등의 기술도입이 빨라지고 있음.
 - 기술도입은 다양한 혜택과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취약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운영리스크를 높이고 있으며, 또한 사이버보안을 위한 기술개발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음.
- 아시아에서는 최근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팽창과 도시화로 피해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으나 보험을 통한 피해구제는 미미함.
 - 아시아는 2000~2009년까지 재해로 인한 손실이 글로벌 총액의 41%를 차지했으며, 2011년의 경우 81%를 차지하는 등 재해리스크가 증가하였으나 지난 30년간 전 세계 재해보험금 중 아시아의 비중은 5%에 불과함.
 - 아시아에서의 재난보험 개발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발생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고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재해관련 데이터수집 및 모델개발능력이 낮기 때문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보험규제 개혁이 빠르게 진행되고, 보험시장의 글로벌화로 상호연관성이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보험감독당국들도 글로벌 표준 논의 참여와 채택이 활발함.
 -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가 2011년 보험핵심원칙(ICPS)을 개정하고 다각화된 대형 보험그룹(IAIGs)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에 나서는 등 국제적 보험규제 개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비록 다수의 아시아 보험감독당국들이 IAIGs 등 보험그룹의 감독주체는 아니지만 국제적 자본요건, 기업지배구조와 소비자보호와 같은 글로벌 표준 등은 감독당국들의 이해와 관련되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아시아 보험감독당국들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국 보험시장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재무건전성 감독체계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글로벌 보험규제 개혁 추세에 맞춰 여러 아시아 감독당국들은 각국 보험시장의 리스크속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기준자본(RBC) 제도 도입이 증가하고 있음.
 - 홍콩의 경우 2014년 RBC제도 로드맵에 대한 의견보고서¹⁾를 발간하였으며, 인도는 2013년 RBC제도 도입에 관한 공개초안을 발간하고 제도도입을 주도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중국 보험당국이 2015년 중국 리스크중심 지급여력 체제(C-ROSS)로 알려진 2세대 지급여력 규제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함.
 - 싱가포르의 경우 2004년에 선도적으로 RBC제도를 도입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도 보험회사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였고 보다 적시의 효과적인 감독 개입이 가능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RBC2를 개발하여 운영 시험 중에 있음.
 - 현대적 RBC제도는 사이버보안을 포함하는 운영리스크와 재해리스크와 같은 새롭게 부각되는 리스크를 측정하도록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비록 계량화가 쉽지는 않으나 리스크 조기발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아시아 감독당국들은 재무건전성 규제 현대화 외에도 자국 보험회사에 대해 기업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²⁾를 포함하는 전사적 위험관리(ERM)는 아직 생소하나 말레이시아는 2012년 9월부터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ICAAP)를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중국도 몇 년 전부터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ERM요건을 도입하였고 싱가포르도 2013년에 ORSA를 포함한 ERM요건을 도입했음.
-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글로벌 규제개혁에 대한 대응으로 아시아 보험감독당국들은 보험규제의 정비 외에도 효과적인 감독능력 배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국제기구와 공조하고 있음.
 - IAIS는 회원국들 사이에 보험감독실무와 표준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보험감독자들을 훈련하기 위해 각국 감독당국, ASEAN 보험 훈련 및 연구협회, 재무안정성협회,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기구와 공조하고 있으며, 아시아 보험감독당국들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고 있음.

■ 아시아 각국이 자국 보험시장의 리스크속성을 반영하여 건전성감독체계를 개발하고 자국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높이는 사례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 RBC모델개발 과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The Geneva Association, A.M. Best)

1) 홍콩이 구상중인 RBC제도, 싱가포르(QIS 1 of RBC2), 호주에서 제시된 자본요건 제도에 대한 구체적 비교는 A.M. Best Special Report(2015, 6, 10)를 참조 바람.
 2) ORSA는 호주가 2013년, 미국이 2015년에 도입하였고, 일본 역시 2015년 내 도입을 추진 중이며, 유럽에서는 2016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 시험 운영기로 함.